

11월30일(월)/누가복음22:1-6

제목: 안쪽에서만 열리는 문

가롯유다 속에 귀신이 들어간 후 그는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를 팔 모의를 하였다.(3-4절) 그러면 귀신이 어느 무교절날(1절) 한순간에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가 스승을 배신하도록 만들었을까? 가롯유다가 어느날 갑자기 귀신에 홀려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돌아다니며 악을 모의하였을까? 아니다. 그것은 귀신의 일방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 귀신이 활동하도록 먼저 자기 마음 문을 연 그에게 책임이 있다. 귀신은 그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그의 마음의 상태를 항상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들어가 그를 자신의 수하로 만들었다. 그가 먼저 자기 마음 문을 안쪽에서 열지 않았다면 귀신은 그 문을 도무지 열 수 없었다. 책임은 가롯유다에게 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귀신에게 선점당한 그는 더 이상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사람의 마음 문은 항상 안에서만 열리게 되어 있다. 귀신이 그 문을 바깥쪽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과오를 항상 귀신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귀신에게 마음을 내준 자기를 탓해야 한다.

12월1일(화)/누가복음22:7-13

제목: 이미 대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돌아오자(7절) 베드로와 요한은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물었다.(9절)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내렸다. 그는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10절) 그 사람이 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하셨다.(10절) 그리고 집 주인에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할 방을 찾다고 말하라고 하셨다(11절) 분부대로 행한 제자들은 곧 방을 얻을 수 있었다.(12절) 예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었을까? 그는 제자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진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남자를 따라가면 그 집 주인이 방을 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 앞에서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다. 예수님은 사람이 찾아오기 전에 항상 답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그에게 무엇인가를 간절히 부탁할 때 그는 이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성공의 지름길은 우리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그분에게 질문하느냐에 달려있다.

12월2일(수)/누가복음22:14-23 (1)

제목: 잔인한 떡과 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인 떡과 잔을 나누셨다. 그는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은 자신의 몸이라 하셨고(19절)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하셨다.(20절)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과 죽음의 성격을 떡과 포도주로 설명하고 싶으셨다. 떡과 포도주는 음식이다. 음식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즉 자신의 몸과 피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재료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셨다. 밀을 빵아서 만든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자신의 살이 찢겨져 나갈 것을 의미한다. 그 포도 알갱이를 짓이겨서 만든 검붉은 포도주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의미한다. 떡이 찢겨지고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해될지를 예고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일 이처럼 잔인하게 살해된다. 이 잔임함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려는 것이었다. 하나님 아들이 잔인하게 살해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방식을 택하셨다.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잔인한 죽음을 상징한다. 이 음식들은 잔인한 음식들이다.

12월3일(목)/누가복음22:14-23 (2)

제목: 매 식사 때마다 감격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만찬 때 나누어 먹었던 떡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었다. 포도주 또한 특별한 것이 아닌 일반 이스라엘 식탁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음료였다. 예수님은 평범한 두 재료를 사용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교훈을 남기셨다. “너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마다 나를 기념하라”(19절)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사람들이 매 식사 때마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인류 구원의 업적을 매 식사 때마다 성도들이 감사하라는 말씀이다. 성도는 매 식사 때마다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격해야 한다. 성도는 일상에서 자기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구원의 감격에 항상 빠져 있어야 한다. 성도는 교회의 절기 때 행하는 성만찬 때만 예수님을 기념해서는 안된다. 고난주간이나 특별한 절기 때만 예수님의 생각해서 안된다. 밥 먹을 때마다, 간식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의미를 생각하며 감격에 빠져야 한다. 자다가 일어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격에 빠질 수 있어야 한다.

12월4일(금)/누가복음22:24-30

제목: 빛을 갇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에 의해 배반당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 사이에는 또 다시 누가 크냐? 논쟁이 발생했다.(24절) 아마도 이 논쟁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충성심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은 결코 배신자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데서 시작된 듯하다. 이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섬김의 도에 관해서 가르쳐주셨다. 그는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된다 하셨고(26절) 예수님 자신도 식탁에서 주인을 섬기는 하인으로 여기에 와 있다 하셨고(27절) 그리고 자신과 함께 온갖 시련을 겪고도 인내했던 자들은 장차 왕권을 물려받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 하셨다.(30절) 하나님은 자신을 묵묵히 섬기며 인내한 자에게 반드시 그 빛을 갇아주신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묵묵히 섬기며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빛을 지우는 자들이 있고, 또 자기를 과시하며 요란하게 봉사하다가 본전마저도 못 찾을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교회서 말없이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빛을 지우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진 빛을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니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